『中國學』第65輯 (2018.12) DOI http://dx.doi.org/10.14378/KACS.2018.65.65.10
pp.161-182 ISSN : 1229-9618

『鏡花緣』의 유토피아와 혁신사상*

박명진*

【목 차】

1. 들어가며
2. 『경화연』의 유토피아 구상
   1) 선경 유토피아
   2) 이상사회 유토피아
3. 『경화연』의 혁신사상
   1) 사회비판 의식과 혁신사상
   2) 혁신의 한계와 복고의 추구
4. 나오며

【초록】
『경화연』은 18-19세기 이여진에 의해 창작된 것으로 신화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사회비판 의식과 혁신사상을 보여주는 청대의 소설이며, 중요한 유토피아 저작이다. 작품에서 소봉래산으로 상징되는 선경 유토피아는 거시적 유토피아로, 신화세계(경화수월, 선녀)—선경—현실세계(인연, 여자과거)의 구상을 드러내고 있으며, 해외 유토피아 섬나라들은 미시적 유토피아로 현실에 대한 비판과 이상향에 대한 갈망을 투영한 이상사회로서의 유토피아 구상을 보여준다. 『경화연』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비판 의식과 혁신 사상은 여성 문제에 관한 인식, 현실정치와 사회에 관한 인식, 과학문명에 대한 인식 등이 두드러진다. 혁신의 한계에 있어서는 소봉래산으로의 은일이라는 소극적 현실개혁의 유토피아를 제시하고 있으며,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태평성세의 대동사회 유토피아를 제시하며 복고에의 추구를 보여준다.

【키워드】『경화연』, 유토피아, 이상사회, 사회비판, 혁신사상, 복고

* 이 연구는 2018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 영남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과 교수 (piao406@ynu.ac.kr)

1. 들어가며

‘유토피아’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사회 변혁과 혁신을 가져오게 하는 촉매로서의 역할을 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시 말해, 현실의 제도를 뜯어 고치는 사회 ‘개혁’을 넘어 고착된 사회 풍습과 방식 등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혁신’을 꿈 꿀 때, 유토피아는 미래의 ‘이상향’으로서 제안되는 것이다. 유토피아는 시대에 따라 새로운 형태를 지닐 수밖에 없으며, 시대적 한계 속에서 최선의 상태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재라는 시점에서 에른스트 블로흐가 말한 것처럼 ‘보다 나은 삶에 관한 꿈’인 유토피아를 제시하려면, ‘과거의 유토피아는 어떻게 제시되었는가?’라는 문제에 접근함으로써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모습을 바꾸는 유토피아를 연구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유토피아(Utopia)’는 ‘u(없다)’와 ‘topia(장소)’의 합성어로, ‘이 세상에 없는 곳’, 동시에 ‘좋은 곳’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1] 처음 ‘유토피아’란 용어를 사용한 사람은 16세기 영국의 정치가 토머스 모어(Tomas More)로, 1516년에 쓴 『공화국의 최선의 상태와 새로운 섬 유토피아에 대하여(De optimo rei publicae deque nova insula Utopia)』[2]에서 “유토피아는 지리적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좋은 곳”이라고 말하였다.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 곳인지 찾을 수 없는 곳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책이 당시 영국 사회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이상사회를 구현한 ‘유토피아 섬’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모어의 유토피아’가 인간의 노력에 의해 미래에 실현하고자 하는 ‘이상사회’에 대한 제안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서양의 ‘유토피아’와 중국의 ‘유토피아(烏托邦: 공상의 나라)’는 ‘존재하지 않지만 좋은 곳’ 혹은 ‘실현하고자 하는 이상사회’라는 유토피아의 개념에서는 공통성을 지니고 있으나, 유토피아의 표현형식에서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서양의 유토피아는 모어의 ‘유토피아’ 이래 베이컨의 ‘아틀란티스’, 캄파넬라의 ‘태양의 도시’ 등 현실에 대한 비판과 성찰을 바탕으로 인간 이성의 힘에 의지해 이루어진 새로운 사회의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중국의 유토피아는 그 유형을 『산해경(山海經)』형, 무릉도원(武陵桃源)형, 삼신산(三神山)형, 대동사회(大同社會)형으로 나눌 수 있다.[3] 이러한 유형을 더 크게 분류해 보면, 중국의 유토피아는 신화 유형으로 대표되는 판타지적 이상향과 대동사회 유형으로 대표되는 현실적 이상사회라는 아주 다른 성격의 두 유형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흔히 중국인의 사유 속에 있는 ‘무릉도원’형 유토피아는 도교적 판타지 이상향과 현실적 이상사회가 결합된 독특한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의 고전서사는 중국의 유토피아에 대한 사유방식을 보여주기에 아주 유리한 글쓰기일

---

1) 그리스어에서 ‘eu’가 좋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유토피아에 ‘좋은 곳’이란 의미가 더해졌다. 유토피아를 적극적인 의미로는 ‘세상에 없으나 좋은 곳’을 의미하는 에우토피아(Eutopia)라고도 말한다.

2) 이 책은 바로 『유토피아』로 알려진 책이다. 본고에서는 한국어 번역본 『유토피아』(토마스 모어 지음, 주경철 옮김, 을유문화사, 2017)를 참고하였다.

3) 정재서, 「유토피아의 개념(槪念) 및 유형(類型)에 관한 비교(比較) 시론(試論)」, 『중국문학』, 제24집, 1995, p.16.

것이다. 고전서사 중에서 중국적 유토피아라면, 흔히 판타지적 이상향을 보여주는 중국의 신화전설(神話傳說)과 현실 비판적 이상사회를 보여주는 중국의 고전소설 대작『수호전(水滸傳)』등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경화연(鏡花緣)』은 이들 작품보다 유토피아에 더욱 직접적으로 접근한 중국의 유토피아 저작으로 꼽을 수 있다. 이 작품은 아주 박학한 한 문인에 의해 창작된 것으로, 18-19세기 중국인의 유토피아적 사유를 보여주는 아주 독특한 고전소설이다.

『경화연』은 이여진(李汝珍, 1763-1830)[4]에 의해 1820년 전후에 창작된 것으로[5], 작가의 신화적 상상력과 사회비판적 태도와 혁신적 사상을 보여주는 청대의 대표적인 소설이다. 이여진이 이 작품을 쓴 시기는 청(淸)나라 중엽 이후 사회적 변혁의 시기인 가경제(嘉慶帝) 때이다. 작가 이여진은 화려했던 건륭(乾隆)의 盛世와 쇠퇴의 길로 들어선 가경의 혼란기를 살았던 인물로, 전제왕조의 봉건제도로 인해 생겨난 각종 사회모순과 병폐를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목도하고『경화연』이라는 소설작품을 통해 사회를 풍자적으로 비판한 작가이다. 그는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만주족과 한족의 차별, 15년에 걸친 문자옥(文字獄) 등 만주족의 한족에 대한 억압을 몸소 경험하며 뛰어난 재능을 가졌음에도 그 재능을 드러낼 기회를 얻지 못했다. 또한 이여진은 '구류에 모두 능통했고 넓게 백희를 섭렵하였으며, 세상에 비할 바 없이 총명하며 새로운 경지에 통달한(兼貫九流, 旁涉百戲; 聰明絶世, 異境天開)' 인물이었다. 그는 다재다능했던 인물로 다양한 지식을 자유롭게 늘어놓을 수 있는 인물이었다.[6] 그러므로 그의 손에서 탄생한『경화연』은 독특한 제재유형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기행소설·풍자소설·역사소설·영웅전기·재자소설·신마소설·재학소설 등 다양한 유형이 결합되어 있다. 노신(魯迅)은 이 작품을 재학소설(才學小說)로 분류하였으며, 호적은 사회문제 특히 여성문제를 다룬 소설이라 했으며, 제유곤(齊裕焜) 등은 풍자소설로 보았으며, 장준(張俊)은 잡가소설(雜家小說)로 명명하였다. 이 작품은 기존 연구자들이 말한 다양한 특성을 모두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작품의 각각의 특성에 대해 연구자들은 다양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7] 이것으로『경화연』의 특성을 모두 드러냈다고 보기에는 아쉬움이 있다. 이 작품은 기존의 풍자소설처럼 당시의 사회현실을 냉소적으로 비판하고 개혁의지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풍부한 상상력과 혁신적 사유를 바탕으로 미래의 혹은 존재하지 않는 '보다 나은 삶에 관한 꿈'인 새로운 이상사회인 유토피아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토피아 저작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시 말

---

4) 이여진은 자(字)는 송석(松石)이고 직례성(直隸省, 지금의 하북성) 대흥(大興) 사람으로, 대략 1763-1830년을 그의 생졸 연대로 추정할 수 있다. 생졸 연대가 분명히 밝혀지지는 않았다. 어린 시절 부친이 사망한 후 형 이여황(李汝璜)을 따라 강소(江蘇) 해주(海州)로 옮겨 20여 년을 살았다. 그는 과거시험에서 크게 뜻을 이루지 못했던 인물이나, 경전에 정통했을 뿐만 아니라, 천문·의약·수학·음운·시가·서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해박한 지식을 겸비하고 있었고, 특히 음운학에 대한 조예가 깊었다고 한다. 胡適,『胡適古典文學硏究論集』, 上海古籍出版社, 1988, pp.1112-1117.

5) 호적은 손길창이 '십 수 년' 동안 썼다라고 했던 것에 근거하여, 1828년의 개자원(芥子園) 초간본을 고려할 때, 약 1810-1825년에 집필되었다고 추정하였다. 胡適, 위의 책, p.1116. 창작한 기간에 대해서 북경대학도서관(北京大學圖書館, 馬廉舊藏本) 소장본을 저본으로 한『경화연』에는 '삼십 여 년'의 심혈을 기울였다고 되어 있다. 李汝珍 著,『鏡花緣』, 人民文學出版社, 1994, p.760.

6) 胡適, 위의 책, pp.1124-1125.

7) 국내에서『경화연』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 성과로는 정영호 선생의 박사학위 논문을 비롯해 다수의 연구 논문이 있다.

해, 이여진은 특정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자라난 사회비판적 태도와 혁신적 사상을 바탕으로, 작가적 풍부한 상상력과 빼어난 문장력을 발휘하여, 『경화연』에서 이상사회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유토피아적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경화연』은 '중국의 『걸리버 여행기』'라 불리는 작품으로, 현실에서 뜻을 펼치지 못한 인물이 40여 개의 해외 섬나라를 유람하며 유토피아를 발견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작품이 아주 먼 미지의 세계를 유람하는 이야기를 여행기 형식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구의 유토피아 저작들과 그 형식이 닮아 있다. 또한 유토피아는 공상의 세계, 허구의 나라를 그리고 있으나 현실에 대한 철저한 비판에서 출발하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탐색한 후 개선된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8] 유토피아가 사회현실에 대한 냉철한 비판에서 시작되어 새로운 사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사회적 삶을 풍요롭게 하는 수단일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때, 중국의 고전소설 『경화연』은 서양의 유토피아 저작들과 그 내용면에서도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 『경화연』은 사회현실에 대한 비판과 혁신사상을 바탕으로 유토피아의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 작품은 청대 중국인의 유토피아적 상상력·현실사회에 대한 비판·새로운 사회건설에 대한 비전 등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유토피아 저작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가 현실사회에 대한 풍자와 비판을 바탕으로 한 이상사회에 대한 동경에 맞추어져 있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작가의 유토피아적 사유를 중심으로 작품 전체에서 유토피아를 어떻게 그려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우선 『경화연』의 유토피아 구상을 분석하고, 다음으로 『경화연』의 혁신사상과 그 한계를 논의하고자 한다.

2. 『경화연』의 유토피아 구상

『경화연』은 총 100회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화와 역사가 만나는 이야기이며, 동시에 여행기이다. 이 작품은 무측천(武則天) 시대에 수재(秀才) 당오(唐敖)라는 인물이 속세를 떠나 해외 섬나라를 유랑하다 신선이 되어 선계 소봉래산(小蓬萊山)으로 간 이야기와 그의 딸 당소산(唐小山)이 아버지를 찾다가 여자과거에 응시하여 이름을 내는 이야기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 작품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1회-제6회는 신화 이야기를 중심으로 주요 여성 인물들의 전생에 대한 이야기와 복선들로 이루어져 있다. 선계의 백화선자(百花仙子)가 여신 항아(嫦娥)와의 갈등으로 인해 인간세상으로 쫓겨나 여주인공 당소산으로 환생한다는 설정에서 시작된다. 제7회-제40회는 당오가 현실정치에서 실의하고 임지양(林之洋)·다구공(多九公)과 동행하여 배를 타고 군자국(君子國)·무장국(無腸國)·대인국(大人國)·흑치국(黑齒國)·숙사국(淑士國)·양면국(兩面國)·여아국(女兒國)·헌원국(軒轅國) 등 40여 해외 섬나라를 유람한 후, 소봉래산으로 가서 신선이 되는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 작품의 후반부 제41회-제100회는 당소산이 두 차례 소봉래산으로 아버지를 찾아 떠나는데, 첫 번째 소봉래로 간 후 이

8) 주경철 지음, 위의 책, 2015, pp.26-27.

름을 당규신(唐閨臣)으로 바꾸고 재녀를 뽑는 여자과거에 응시하기 위해 돌아오고, 두 번째 소봉래로 간 후 신선들과 함께 중종(中宗) 복위를 도모하는 의사들을 도우러 돌아오는 이야기가 주축을 이룬다.

작품 속에는 이 이야기가 기록된 과정을 전하고 있는데, 선계 흰 원숭이의 부탁을 받고 이여진이 '경화수월(鏡花水月)'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라고 했다. '경화수월'은 '거울에 비친 꽃과 물에 비친 달'이란 의미로, 이루지 못한 이상사회에 대한 동경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9] 작품 속에서 백초선자(百草仙子)가 인연이 있다면 "아마도 훗날의 누군가는 이러한 태평성세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大約日後總有一位姐姐恭逢其盛.)"[10]라고 말했듯이, '경화수월'의 인연(因緣)을 말하는 '경화연'은 '동경—새로운 유토피아 세상'과의 인연을 이야기하는 작품이라 볼 수 있다.

『경화연』의 이야기는 고대의 신화세계·신선의 선경(仙境)·현실세계를 넘나들면서, 무측천 시대 중종 복위의 서사를 주축에 두고, 당오가 여행한 해외 섬나라들의 이야기와 재녀들의 과거시험 이야기를 심도 있게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경화연』의 유토피아 구상은 소봉래라는 선경으로 상징되는 거시적 유토피아와 여러 해외 유토피아 섬나라들로 상징되는 미시적 유토피아가 이중적으로 얽혀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소봉래산은 거시적 유토피아를 실현하는 '선계' 혹은 '선경' 유토피아이다. 이 선경 유토피아는 신화세계(경화수월, 선녀)—선경—현실세계(인연, 여자과거)가 연결되어 있는 구상을 드러내고 있다. 해외 유토피아 나라들은 미시적 유토피아로, 현실에 대한 비판과 이상사회 건설에 대한 갈망을 투영하고 있는 이상사회 유토피아 구상을 보여주고 있다.

1) 선경 유토피아

『경화연』의 유토피아는 선경 이상향을 보여주고 있다. 소봉래라는 선경의 공간으로 상징되는 '선경 유토피아'는 작품이 추구하는 거시적 유토피아이다. '선경'은 '선계'와 함께 쓰이는 말로, 원래 도교문화에서는 신선이 사는 곳을 뜻하지만 신선이 살만한 좋은 곳의 의미로부터 속세를 떠난 좋은 곳, 이상적이고 완전한 곳 등의 의미로 확대되어 쓰이고 있다.[11] 선경은 동양적 유토피아의 한 형태로, 현실 속에 존재하는 인간의 이상세계라는 점에서 신화적 환상세계와는 차이가 있으며, 현실에서 추구하는 이상사회인 대동사회 유토피아와 닮아 있다. 선경 유토피아는 신화적 환상세계와 현실적 태평성세가 결합된 어떤 형태로 볼 수 있는데, 서구의 유토피아와는 달리 현실의 어느 공간 속에 존재하나 쉽게 갈 수 없는 특이한 공간이다. 선경은 천혜의 자연조건이 갖추어진 장소이며, 인간이 자연의 이치에 의해 살아가는 곳으로,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없는 제한된 공간 속에 건설된 유토피아이다. 이것은 서구의 아르카디아(Arcadia)와 유사하며[12], 동양의 신화적 판타지 세계와는 달리 소극적이지만 사회의식을

9) 李汝珍 著, 위의 책, p.3.
10) 李汝珍 著, 위의 책, p.3.
11) 정재서, 위의 논문, p.5.
12) '아르카디아'는 고립된 그리스의 땅으로, 사람들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모두 소박하고 평화롭고

지니고 현실과 어느 정도 교감하는 공간이다.

『경화연』의 선경 유토피아는 소봉래라는 신화 속 선계의 공간을 끌어옴으로써 판타지적 이상향에 대한 추구를 보여주고 있다. 작품 제1회에는 신화 속 선계의 모습이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 천하의 명산으로 말하자면 서왕모가 사는 곤륜산 외에도 바다 가운데 삼신산이 있는데 봉래·방장·영주이다. 이들은 모두 아득히 멀리 떨어진 곳에 있고,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이 솟아 있다.…그곳에는 금은보화가 넘쳐나고 경치가 빼어나다. 가장 사람들을 끄는 점은 그곳에서는 사시사철 꽃이 지지 않고 일 년 내내 초목이 푸르다는 것이다.(且說天下名山, 除王母所住崑崙之外, 海島中有三座名山: 一名蓬萊, 二名方丈, 三名瀛洲. 都是道路寫遠, 其高異常.…其中珍寶之盛, 景致之佳. 最可愛的, 四時有不謝之花, 八節有長青之草.)[13]

작품은 천하의 명산 곤륜산(崑崙山)과 삼신산의 신화적 판타지 세계를 끌어왔으며, 당오의 딸 소산의 전생을 봉래산에 살고 있는 선녀 백화선자로 설정함으로써 봉래와 소봉래를 연결시킨다. 제40회에서 해외 유람을 끝낸 당오는 소봉래산으로 들어가 신선이 된다. 소봉래는 이처럼 삼신산 중 하나인 봉래에서 이름을 가져와 바다 가운데 있는 범속을 초월한 성인의 경지(入聖超凡)로서의 유토피아 공간으로 설정된다. 소봉래는 두루미와 사슴 같은 짐승들이 사람의 손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입안에 맑은 향기가 가득 퍼지는 소나무와 측백나무 열매들이 가득한 곳 즉, 신화적 판타지 세계를 모방한 선경 유토피아 공간이다. 이곳이 바로 『경화연』의 작가가 추구하는 거시적 유토피아의 핵심 공간이다.

작품에서 선경이라는 유토피아 공간은 시공을 초월한 독특한 방식으로 신화세계와 현실세계를 연결하고 있다. 소봉래 경화총(鏡花塚) 수월촌(水月村) 읍홍정(泣紅亭)에는 옥으로 된 비석이 있는데, 재녀 100인의 성명과 함께 선계의 기밀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매일 빛을 내며 멀리 떨어진 괴성(魁星)과 교신을 하는데, 선계에서 괴성이 항아와의 내기에서 진 백화선자의 이마에 점을 찍자 붉은 빛을 타고 공간을 초월해 소봉래의 옥비석과 교신을 한다. 백화선자는 결국 시공간을 초월해 당나라 무측천 시대의 재녀 당소산으로 환생함으로써 다시 현실세계와 연결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작품은 신화세계(경화수월, 선녀)—선경—현실세계(인연, 여자과거)로 연결된 거시적 유토피아 구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유토피아의 핵심 공간은 바로 선경이다.

선경 유토피아에는 판타지적 이상향을 보여주는 신화적 유토피아와 현실 비판에 기반을 둔 이상사회 유토피아가 결합되어 있다. 작품은 비판적인 태도로 현실사회를 묘사하고 있는데, 뛰어난 재능을 지녀 과거에 급제했으나 시대적 혼란으로 인해 탄핵을 받게 된 당오의 회재불우(懷才不遇)의 이야기와 역시 빼어난 재능을 지녔으나 여성의 신분이라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불평등을 겪는 당소산의 이야기에는 현실문제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사회인식이 농후하게 깔려있다. 당오는 서경업(徐敬業)의 중종 복위 사건과 엮여 권력의 중심에서 쫓겨난 사회적 약자이며, 당소산은 여성이라는 시대적 불평등을 상징하는 사회적 약자이다. 작품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목가적인 지방이다. 주경철 지음, 위의 책, pp.30-31.

13) 李汝珍 著, 위의 책, pp.1-2.

이러한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현실세계에서 '보다 나은 삶에 관한 꿈'을 실현할 유토피아를 제시한다. 작품은 당오가 육지(肉芝)·축여(祝餘)·섭공초(躡空草)·도미핵(刀味核) 등을 먹고 장수를 누리는 지상의 신선이 되었으며, 세상과의 인연을 끊고 아무런 사회적 불평등과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 선경의 세계인 소봉래로 들어가는 이야기를 통해 선경 유토피아를 제시했다. 또한 소봉래라는 선경은 이곳 옥비석에 이름을 올린 선녀들이 무측천 시대의 재녀로 환생하여 불평등을 극복하고 여자과거에서 모두 급제함으로써 경화(鏡花)의 인연을 완성하는 거시적 유토피아를 실현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선경이라는 유토피아 공간에서 당오는 적극적으로 현실을 개혁하거나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으며, 자연에 순응하는 무위지치(無爲之治)를 추구한다. 또한 여성인물들은 여자과거를 통해 한때의 명성은 얻지만, 결국 한 남성의 아내가 되어 중종의 복위를 도모하는 남편을 내조하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 '경화수월'이라는 말처럼 이들의 유토피아는 현실 속에서는 완벽한 실현을 거두지 못한 채 사라져 버리고, 소봉래의 옥비석에만 선경의 유토피아로 남게 된다.

유토피아가 섬이라는 설정은 동서양의 공통적 속성이라 할 수 있다. 섬은 분리된 땅으로, 새로운 질서를 꿈꾸는 사람들이 자신의 구상을 펼치는 공간으로 흔히 섬을 사용한다.[14] 그런데, 유토피아 섬의 개념은 『경화연』에 등장하는 섬 즉, 소봉래의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서양의 유토피아 섬은 인간이 공동의 노력으로 스스로 만든 이상향이며, 유토피아 사회는 처음부터 완성된 형태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탄생과 성장 및 발전을 거치는 나라이다.[15] 이처럼 서양의 유토피아 섬이 적극적 현실개혁의 유토피아라면, 『경화연』에 등장하는 소봉래 섬이라는 선경 유토피아는 은일사상(隱逸思想)과 복고로의 회귀를 보여주는 소극적 현실비판의 유토피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경화연』의 유토피아 구상은 소봉래라는 선경을 중심으로 하여 신화세계의 판타지적 이상향과 소극적인 현실비판에 근거한 이상사회를 연결하는 방식을 통해 거시적 유토피아를 제시하였다. 다시 말해, 소봉래로 상징되는 선경 유토피아는 『경화연』의 거시적이고 심층적인 유토피아 구상을 보여주고 있다.

2) 이상사회 유토피아

『경화연』에서는 당오 일행이 해외를 여행하는 과정을 통해 기이한 해외 섬나라들을 묘사하고 있다. 이것은 흔히 여행기 형식으로 알려지지 않은 세계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서구의 '유토피아 장르'[16]와 일치하는 특성을 보여준다. 『경화연』의 해외 섬나라들은 중국 고전 『산해경(山海經)』에 기반을 두고 작가의 상상력과 현실비판적 유토피아의 구상을 더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은 바로 『경화연』의 유토피아 구상에서 미시적 유토피아를 보여주고 있다. 작가는 해외 섬나라들로 상징되는 미시적 유토피아를 통해 현실사회를 비판하고 있으며,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사회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

14) 주경철 지음, 위의 책, p.103.
15) 주경철 지음, 위의 책, p.111.
16) 주경철 지음, 위의 책, p.37.

해외 섬나라 유람 이야기는 100여 년 전 유럽에서 탄생한『걸리버 여행기』와 닮아 있으며, 이것은 이여진이 바다와 인접한 강소 해주에서 20여 년간 생활했던 경험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17] 『경화연』 제40회까지는 당오 일행의 해외유람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해외 섬나라들은 이상사회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미시적 유토피아를 보여주고 있다. 해외 섬나라로 상징되는 유토피아는 단순히 존재하지 않는 이상사회가 아니라 현실세계를 통해 만들어진 공간으로, 현실세계에 대한 사회인식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현실사회 비판과 이상향 제시가 내재되어 있다.『경화연』의 미시적 유토피아 섬들은 모어의 '유토피아 섬'을 떠올리게 한다. 이곳 역시 섬으로 설정되었다는 점에서 서구의 유토피아 공간과 공통적 특성을 보여주긴 하지만, 서구의 유토피아가 현실비판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과는 달리『경화연』의 유토피아 섬들은『산해경』의 중국신화에 근거하여 묘사된 섬나라들로 판타지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

『경화연』의 미시적 유토피아 구상은 군자국·대인국·흑치국·여인국·숙사국·헌원국 등 나라들의 모습을 통해 묘사되는데, 이곳은 갈 수 없는 먼 곳으로 전해들은 기이한 이야기 속 해외의 섬나라로 설정이 되어 있다.『경화연』은 당오 일행의 해외 섬나라 여행을 통해 현실비판과 사회개혁 의지에 기반을 둔 이상사회의 모델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작품의 미시적 유토피아 구상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경화연』은 성인(聖人)의 가르침을 구현한 이상사회로서의 유토피아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것은 현실비판 의식에 기반을 둔 하나의 미시적 유토피아이다. 제11회 이야기에는 오직 선한 것만을 보배로 삼는 '유선위보(惟善爲普)'의 나라 군자국이 등장한다. 여기에서는 예의를 아는 군자국과 인의가 넘치는 충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군자국 사람들은 서로 '양보를 좋아하고 다투지 않으며(好讓不爭)', '농부는 논밭을 양보하고 행인은 길을 양보하며(農者讓畔, 行者讓路)', '선비건 서민이건 부귀빈천을 막론하고 행동과 말이 공손하고 예의 바르니 군자라 부르기에 손색이 없었다.(士庶人等, 無論富貴貧賤, 擧止言談, 莫不恭而有禮, 也不愧'君子'二字.)'[18] 군자국의 유토피아는 성인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신랄한 현실비판 의식과 사회개혁 의지에 기반을 두고 있다. 군자국의 재상 오지화(吳之和)와 오지상(吳之祥)은 당오 일행이 살고 있는 당나라에 대해 "천조야말로 성인의 나라이지요. 예부터 성인들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으며, 예약으로 교화하니 만천하가 오랜 세월 존경하고 있지요.(至于天朝聖人之邦, 自古聖聖相傳, 禮樂教化, 久爲八荒景仰.)" "지금 천조에는 성군이 재위하여 정사가 바르고 완벽해, 그 은혜가 중원 밖까지 미치고 있습니다.(如今天朝聖人在位, 政治純美, 中外久被其澤.)"[19]라고 극찬했으나, 이것은 그렇지 못한 현실에 대한 반어적 비판이다. 그들은 현실사회의 장례·잔치·출가·소송·도살·음식·매파·무당·계모·전족·점·사치 등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와 심각한 구풍속의 폐해를 조목조목 들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들은 '오직 세상 군자들이 나서서 이 악습을 근절시켜야 만이 이 풍속이 점차로 사라질 것입니다.(惟世之君子, 盡絶

17) 정영호,「『걸리버여행기』와『鏡花緣』에 나타난 사회비판과 이상향」,『중국소설논총』, 제18집, 2005, p.311.
18) 李汝珍 著, 위의 책, p.65.
19) 李汝珍 著, 위의 책, pp.69-70.

其習, 此風自可漸息.)'[20]라고 경종을 울리고 있다. 『산해경』에서 군자국에 대한 묘사는 의관을 갖추었다는 정도의 간략한 내용 밖에 없지만, 이여진은 성인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이상사회로서의 군자국을 형상화하여 유토피아 구상을 담아냈다. 작가는 군자국 재상의 이러한 통렬한 사회 비판을 통해, 군자국이 현실사회에 대한 개혁의지에 기반을 둔 이상사회의 한 모델임을 알 수 있다.

당오 일행은 여행을 계속하여 제14회에서 사람들이 오색구름을 타고 다니는 대인국에 도착한다. 이곳 역시 성인(聖人)의 가르침을 구현한 이상사회로서의 유토피아를 보여주고 있다. 이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걸어 다니지 않고 다양한 색깔의 구름을 타고 다닌다. '이 나라 사람들은 검은 구름을 수치스럽게 생각해서 나쁜 일에는 몸을 사리고 착한 일에는 앞장서며, 조금의 소인 기질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웃나라에서는 대인국이라 부른다.(蓋因國人皆以黑雲爲恥, 遇見惡事, 都是藏身退後: 遇見善事, 莫不踊跃爭先: 毫無小人習氣, 因而隣邦都以'大人國'呼之.)'[21]고 한다. 대인국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구름은 사람됨의 선악에 따라 오색·노란색·검정색 등으로 그 색깔이 달라지는데, 올곧은 마음을 지니면 발아래 오색구름이 나타나고, 사악한 마음을 먹기만 해도 검은 구름이 생겨난다. 이 이야기는 언행의 선악을 통해 사람의 귀천을 정한다는 이상을 제시하여, 돈과 권력으로 귀천을 정하는 현실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작품은 해외 섬나라에 투영된 미시적 유토피아를 통해 현실비판에 기반을 둔 이상사회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경화연』은 진일보하여 사회혁신을 구현한 이상사회로서의 유토피아를 제시하고 있다. 제16회-제19회 이야기에는 치아와 입술은 검고 눈썹은 붉으며, 자주색이나 붉은 옷을 입는 못생긴 외모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흑치국이 등장한다. 이 나라에서는 예의를 숭상하는 군자국과 유사한 풍습이 있어, 남자와 여자가 따로 모이며 시전 가운데의 큰길에서도 남자들은 오른쪽으로 여자들은 왼쪽으로 통행하며 심지어 작은 골목에서도 구별하여 다닌다. 그런데 흑치국은 표면적으로는 전통적인 예의범절을 철저히 존중하고 있으나, 그 이면에서는 혁신적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우리고장 시험에는 여자과거가 없지만, 예부터 국모께서 10년에 한 번씩 시기를 살펴 성전을 행하시는 관례가 있습니다. 글을 아는 처녀들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어요. 학문의 우열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재녀의 편액을 하사하거나, 재녀에게 관대를 하사하거나, 부모에게 벼슬을 주거나, 시부모에게까지 영화를 내리니, 이곳의 큰 경사랍니다. 그래서 딸 가진 집에서는 귀천을 막론하고 딸이 사오 세만 되면 학당으로 보내 시험 준비를 하도록 합니다.(至敝鄉考試, 歷來雖無女科, 向有舊例, 每到十餘年, 國母卽有觀風盛典: 凡有能文處女, 俱準赴試, 以文之優劣, 定以等第, 或賜才女匾額, 或賜冠帶榮身, 或封其父母, 或榮及翁姑, 乃吳鄉勝事. 因此, 凡生女之家, 到了四五歲, 無論貧富, 莫不送塾讀書, 以備赴試.)[22]

이곳은 당시로는 상상하기 힘든 남녀평등이 초보적으로 실현된 혁신적인 곳이라 할 수 있

20) 李汝珍 著, 위의 책, p.78.
21) 李汝珍 著, 위의 책, p.90.
22) 李汝珍 著, 위의 책, p.108.

다. 또한, 재학이 넘치는 흑치국 여성인물들에 대한 묘사를 통해 혁신을 실현한 이상사회의 모습을 그려내었다. 제18회에는 당오 일행 중 조타수 다구공이 잘난 척하며 흑치국 소녀들과 운서·『논어』·『시경』 등 책에 대해 논쟁을 하다, 소녀들의 뛰어난 학식에 밀려 '맹인에게 길을 묻는 격(問道於盲)'이라고 조롱을 당하며 혼쭐나는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였다. 다구공은 흑치국 소녀들에게 모욕을 당한 후, "이거야말로 겉만 보고 얘기한 것이죠, 전체를 분명히 보지 못했으니 생각이 편협해졌던 겁니다.(乃就事論事, 未將全體看明, 不無執著一偏.)"[23]라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반성했다. 『경화연』은 이처럼 우화적 글쓰기 방법으로 흑치국 이야기를 통해, '검은 겉모습만 보느라 진짜 얼굴을 자세히 보지 못하는(因這國人過黑, 未將他的面目十分留神)' 세태와 '이들 가운데 섞여있으니 그들의 지적인 풍모가 사방에 비쳐, 자신이 몰골이 끔찍하고 너무나 천박하게 느껴지는(如今我們雜在衆人中, 被這書卷秀氣四面一衬, 只覺面目可憎, 俗氣逼人)'[24] 우리의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작품은 또 당오·임지양·다구공이 흑치국에서 곤혹을 치른 후 흑치국 사람들의 걸음걸이를 흉내 내는 모습을 통해 억지로 선비인 척 하며 우아한 자세를 취하느라 허리며 다리와 목이 쑤셔 괴로워하는 장면을 유머 넘치게 묘사하였다. 또한 책을 귀하게 여기는 흑치국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흑치국에는 도적이 없어서 물건을 잃어버리는 일도 없고, 길에 금이 떨어져도 주워가는 사람이 없다(本地向無盜賊, 從不偷竊, 就是遺金在地, 也無拾取之人.)'[25]고 했다. 다만 이곳 사람들은 책에만 집착하여 어떻게든 훔치거나 돌려주지 않고 차지하려 하는 정도가 지나친 모습도 보여 준다.

당오 일행은 여행을 계속하여 제32회-제37회에서 여성들의 유토피아 여인국에 도착한다. 이곳은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사고에 기반을 둔 또 하나의 미시적 유토피아이다. 『서유기(西遊記)』에서 삼장법사를 난처하게 만들었던 여자들만 사는 여인국이 떠오르겠지만, 이곳은 다른 여인국이다. 호적은 "이 여인국은 여성들의 속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이여진 이상 속 유토피아이다."라고 하였다.[26] 이곳 여인국에서는 현실과는 정반대로 여자가 남자이고 남자가 여자이다. 이곳 남자들은 반대로 치마를 입고 부인네가 되어 집안일을 하고, 여자들은 반대로 장화를 신고 모자를 쓰고 남정네가 되어 바깥일을 한다. 남녀가 짝을 이루지만 안팎의 구분은 다른 곳과는 다르다.(男子反穿衣裙, 作爲婦人, 以治內事: 女子反穿靴帽, 作爲男人, 以治外事. 男女雖亦配偶, 內外之分, 却與別處不同.)[27] 이곳 남자 부인네들은 검은 머리카락을 파리가 미끄러질 정도로 매끈하게 기름칠해 머리 위로 쪽을 찌고, 귀밑머리 옆을 진주와 비취로 눈부시게 장식했다. 또한 화려한 금 귀걸이를 달고 장밋빛 장삼에 초록색 치마를 입었으며 전족을 했다. 당오 일행 중 처남 임지양은 물건을 팔러 여인국 국구부(國舅府)에 갔다가, 국왕이 그를 왕비로 책봉하려는 바람에, 귀를 뚫고 보석이 박힌 금 귀걸이를 걸고 분을 바르고 능사로 발을 동여매는 고초를 겪게 된다. 이 장면은 현실사회를 거꾸로 뒤집어 놓아 임지양의 고통에 슬픔을 느끼게도 하지만, 한편 이러한 설정자체에 해학이 넘쳐 재미를 느끼게도 한다. 작품에서 여인국 유토피아는 여자들의 재능이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고 불평등한 현실에 대

23) 李汝珍 著, 위의 책, p.128.
24) 李汝珍 著, 위의 책, p.128.
25) 李汝珍 著, 위의 책, p.131.
26) 這個女兒國是李汝珍理想中給世間女子出氣申寃的烏託邦. 胡適, 위의 책, p.1129.
27) 李汝珍 著, 위의 책, p.229.

한 비판의식과 현실세계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혁신적인 사고에서 출발하고 있다. 호적은 이에 대해 "여아국은 이여진의 이상국 중 여권신장의 유토피아이고,…흑치국은 그의 이상 중 여성교육이 발달한 유토피아이다."라고 했다.[28]

그 다음으로, 『경화연』은 대동사회 유토피아 즉, 태평성세의 복고의 유토피아를 제시하였다. 제23회-제24회에는 전욱(顓頊)의 후손이 국왕인 선비의 나라 숙사국 이야기가 등장한다. 이곳은 사농공상에 관계없이 모두 같은 옷을 입는데, 신분에 따라 옷의 색깔만 달라진다. 또한 이곳 사람들은 모두 글을 읽는 선비로, 모두가 과거시험에 참가한다. 숙사국에서는 교육을 통해 선비를 길러내어 죄를 저지르는 자가 드물며, 법을 엄중히 하되 선행을 행하면 죄가 사라지게 함으로써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이곳은 성현의 가르침을 통해 이상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복고적 유토피아를 보여준다. 당오 일행은 여행을 계속하여 제38회-제39회에는 서해에서 가장 큰 나라 헌원국에 도착한다. 헌원국은 태평성세로 난새가 노래하고 봉황이 춤을 추는(鸞鳥自歌, 鳳鳥自舞) 유토피아 세상이다. 이곳 역시 성현의 가르침을 구현한 이상사회로서의 유토피아이며, 황제(黃帝)·요순(堯舜) 시대를 추구하는 복고적 유토피아이다. 이곳 오동나무숲에는 수많은 봉황이 날아다니고, 저자에서는 사람들이 봉황의 알을 팔았다. 또 이곳 사람들은 신화 속 황제의 시대처럼 사람의 얼굴에 뱀의 몸을 하고 뱀 꼬리가 머리까지 말려져 있었으며, 단명해도 팔백 살을 살았다. 이 곳 국왕은 금관을 쓰고 황색 도포를 입었으며, 뱀 꼬리가 금관 높이까지 말려 있었다. 작품은 헌원국을 통해 신화적 판타지와 인간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유가사상(儒家思想)에 기반을 둔 현실적 이상사회 모델이 결합된 독특한 유토피아를 제시하였다. 헌원국 국왕은 천 세 생신을 맞았는데, 황제 이후 성덕이 가장 높다고 칭송을 받고 있었으며 이웃 나라들과 화목하게 지내며 분쟁을 잘 해결하고 있었다. 헌원국 국왕은 화평의 방식을 통해 두 나라 간의 다툼을 없앰으로써 군비를 줄이고 인명을 살렸다. 헌원국은 중국의 전통적인 '대동사회' 유토피아를 보여주고 있다. 대동사회는 유가에서 추구하는 이상사회의 표상으로 유가적 이상세계이다. 대동사회는 평등하고 도덕적이며 평화로운 이상사회를 가리키며, 그 특징은 평등사회이고 민주사회이며, 능력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하는 덕치를 실현하는 사회이며, 도적과 전쟁도 없이 평화로운 사회이며, 백성들이 화목하고 신뢰하며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태평성세의 사회이다. 여러 나라에서 국왕의 생일을 축하해주러 온 사절단이 모이는 천추전에서 공연을 하는데, "구경하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지만 다행이 국왕이 이미 사람들을 몰아내지 말고 마음껏 축하하도록 했다.(那看的人雖如人山人海, 好在國王久已出示, 毋許驅逐閑人, 悉聽庶民瞻仰.)"[29] 이런 면에서 헌원국은 태평성세의 복고적 유토피아를 제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경화연』에서는 해외 섬나라들에 투영된 미시적 유토피아는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을 통해 작가는 습관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習慣成自然) 관습의 폐해가 가져오는 사회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현실비판 의식과 사회개혁 의지에 기반을 둔 이상사회의 모델을 제시했다. 여기에서는 혁신사상과 함께 복고를 추구하는 전통사상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

28) 女兒國是李汝珍理想中女權伸張的一個烏託邦, … 黑齒國,那又是他理想中女子教育發達的一個烏託邦了. 胡適, 위의 책, pp.1135-1136.

29) 李汝珍 著, 위의 책, p.271.

수 있다. 해외 섬나라들이 보여주는 유토피아는 『경화연』의 미시적이고 표면적인 유토피아 구상이라 볼 수 있다.

3. 『경화연』의 혁신사상

1) 사회비판 의식과 혁신사상

모어의 『유토피아』는 풍자의 방식으로 16세기 초 영국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비판하고 현실에 대한 개혁 의지를 바탕으로 이상사회의 모델인 유토피아 섬을 제시하였다. 유토피아 섬이 추구하는 이상사회는 평등하게 노동하고 공동 분배하는 공유제 사회로 평등의 보장을 강조하는 사회이며, 이러한 집단적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전제로 자연에 따라 사는 삶이라 정의하는 '덕'의 함양을 강조하는 사회이다. 이 섬이 추구하는 이러한 사회개혁은 현실의 디스토피아에 대한 냉철한 성찰과 비판을 기반으로 하여 얻어낸 결과물이며, 새로운 이상사회인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뼈대이다.

『경화연』의 유토피아도 현실비판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양의 유토피아 개념과 공통성을 지닌다. 노신(魯迅)이 "사회제도에 있어서도 공평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 일일이 사건을 설정하여 자신의 이상을 담아내었다."[30]라고 한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이여진은 만주족 지배하의 사회적 불평등과 불합리를 목도했고 핍박받던 한족의 실상에 강한 불만을 품었으며, 자신의 이상을 이 작품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였다. 호적(胡適) 역시 손길창(孫吉昌)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여진이 만년에 뜻을 얻지 못하고 이 작품을 썼다고 했다.[31] 호적은 그가 작품에서 상도덕, 풍수론, 출생 잔치, 자식을 사찰에 보내는 일, 소송, 도살, 잔치의 낭비, 계모, 전족, 궁합, 사치 등 12개의 사회문제를 제시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추상적으로 과거제도와 구제 문제를 다루었다고 보았다.[32] 이여진은 사회문제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던 지식인으로, 작품을 통해 현실사회의 병폐를 비판하고,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사회의 모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의 유토피아 의식은 중국 전통사상의 궤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으며, 시대적 한계를 드러낸다.

『경화연』은 신화와 현실세계의 결합이라는 독특한 서사 구조 속에 사회비판 의식과 이를 전제로 한 유토피아 사상을 담아내고 있다. 『경화연』의 시대적 배경은 무측천 재위 시기이다. 무측천은 이십팔수(二十八宿) 중 심수(心宿)에 해당하는 심월호(心月狐)가 환생한 인물로, 당나라의 천자가 되어 음양의 질서를 어지럽혀 이(李) 씨가 수(隋)나라를 찬탈한 죄업을 마무리 짓는 일을 맡았다. 무측천은 중종을 폐위시키고 스스로 보위에 올라 나라 이름을 주(周)라고 바꾸었으며, 무씨 형제들의 권력을 강화하고 당 왕조 이 씨 혈통들의 권력을 축소하였다. 무

30) 其於社會制度, 亦有不平, 每設事端, 以寓理想. 魯迅 著, 『中國小說史略』, 人民文學出版社, 1996, p.251.
31) 胡適, 위의 책, pp.1116-1118.
32) 胡適, 위의 책, pp.1126-1128.

측천은 여자과거를 실시하는 등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였다. 이때 서경업과 낙빈왕 등을 중심으로 한 의병 세력들이 중종의 복위를 꾀하였다가 무측천에게 토벌 당하여 죽거나 흩어졌다. 그러나 결국은 의병 세력에 의해 중종은 복위되고 무측천은 물러나게 되었다. 『경화연』은 질서가 무너진 사회적 혼란 속에서 혁신의 이야기를 끌어내고 있으나,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독특한 방식으로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는다.

작품 서두에서 작가는 이 책을 쓴 취지와 내용의 특성을 논하면서, "지켜지는 것이 있으면 지켜지는 것을, 바뀌는 것이 있으면 바뀌는 것을 그대로 기록하였다.(常有爲常, 變有爲變.)"[33] 라고 밝히고 있다. 분명 이 책이 바뀌는 것 즉, 혁신에 관한 부분도 기록하고 있다고 전달하고 있다. 중국의 유가사상에서 '상변관(常變觀)'은 변하지 않는 것(常住)과 변하는 것(變動)에 관한 관념을 드러내는 것으로, 발전의 일반성과 특수성을 말한다. 그런데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을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되며(變不失常)",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에서 이루어져야 한다(常以處變)"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서로 의존하고 있어야 사회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이 책 역시 전통과 혁신이 결합되어 있어 분간하기 어려운 '기묘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으나, 우리는 이 속에서 작가가 제시하는 사회 변화의 이야기를 찾아낼 수 있으며, 또한 사회 변화의 이야기를 처리하는 독특한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화연』에 드러나는 사회비판 의식과 혁신 사상은 여성 문제에 관한 인식, 현실정치와 사회에 관한 인식, 과학문명에 대한 인식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경화연』은 여성 문제에 대해 비판적 의식과 혁신 사상을 보여준다. 작품은 재녀들의 과거시험 이야기와 기이한 해외 여러 나라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풍자의 수법을 통해 남성 중심의 전통적인 봉건사회에 대한 사회비판 의식과 여성 문제에 관한 현실 개혁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호적은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으로 여성문제를 토론한 책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사회로 여성은 낮은 지위에 놓여 삼종사덕(三從四德)의 순종을 강요당했다. 청대 사회도 건륭 이후 여성을 유희의 대상으로 삼는 기녀제도가 성행하는 등 남녀 불평등의 전통을 그대로 답습하였다. 이러한 전통은 오랜 습관에 의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 작품이 여성에 대한 인식 변화에 관한 것임을 서두의 선계 이야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1회에서 소봉래산 박명암(薄命岩) 홍안동(紅顔洞)에 살고 있던 백화선자는 여러 선녀들과 함께 서왕모(西王母)의 생일을 맞아 곤륜산(崑崙山) 반도승회에 가던 도중 하계 인간사를 주관하는 신 괴성(魁星)이 여인의 모습으로 꽃구름을 타고 곤륜산으로 향하는 것을 보게 된다. 한편, 선녀들은 소봉래산 옥비석에 기록된 내용이 자신들과 인연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나누다가, 백화선자가 "우리가 뜻을 이룬다고 해도 결국은 여성의 몸이잖아요…(可惜我們雖成正果, 究系女身…)"라고 회의적 태도를 취하자, 백초선자는 "지금 괴성이 여성의 모습을 띠고 있으니 여성과 관련된 징조임에 틀림없어요.(現在魁星旣現女像, 其爲坤兆無疑.)"라고 확신한다.[34] 소봉래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변화의 징조로 하계 인간사를

33) 李汝珍 著, 위의 책, p.1.
34) 李汝珍 著, 위의 책, p.3.

주관하는 괴성(魁星)의 모습이 여성의 모습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작품이 여성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사회질서의 변화를 이야기하려는 의도를 가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제47회에서는 당소산이 아버지를 찾으러 소봉래산으로 갔다가 『읍홍정기(泣紅亭紀)』에 "일찍이 이러한 일들이 있었으나 애석하게도 사라져 들리지 않게 되었다. 애군방의 일이 전해지지 않으니 이 때문에 이것을 기록해 둔다.(嘗有所見, 惜湮沒無聞, 而哀群芳之不傳, 因筆志之.)"[35]라는 내용을 발견한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경화연』의 작가는 위대한 여성들의 이야기가 사라지는 것을 슬퍼하여 소설의 형식을 빌려 그들의 사적을 기리고자 한다는 창작의도를 밝히고 있다. 호적은 이에 대해 『경화연』을 쓴 이여진이 최초로 여성문제를 논한 혁신적인 사람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또한 호적은 이여진이 여성문제에 있어 남녀가 교육과 인재등용 기회에 있어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았다.[36] 『경화연』에서는 여성과 관련된 혁신의 내용으로 여성의 정절·교육·정치 참여·전족과 穿耳(귀를 뚫음)·남녀평등 문제까지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양성평등에 대한 진보적인 사상을 보여주고 있다.

소봉래산 옥비석에 기록된 천기(天機)는 무측천 시대에 이르러 재녀들의 과거시험 참여로 실현이 된다. 제41회에서 무측천은 여자의 몸으로 황제가 되었고 대풍년이 들자 여성들을 배려한 12조항의 조서를 내린다. 이 조서의 내용은 여성에 대한 배려와 동정의 인식이 깊이 깔려있다. 또 무측천이 전진(前秦) 소혜(蘇蕙)의 회문시(回文詩)인 『선기도(璇璣圖)』에 대해 풀이한 사유탐(史幽探)과 애췌방(哀萃芳)의 재능에 감탄하여 여성 과거를 실시한다고 선포한다. 당민(唐敏)은 당소산에게 그 가치를 말해주었다. "…(재녀들의) 재능을 아끼는 마음에서 조정 대신들과 논의하여 천하의 재녀들이 모두 과거시험에 참여하도록 하셨단다. 문장의 수준에 따라 순위를 정한 뒤 재녀의 편액을 내리시고, 부모에게는 관대를 하사하시기로 하셨어. 이는 재녀를 독려하는 동시에 재능 있는 여자들이 나온 집안에까지 광영이 미치도록 하였으니 역사에 길이 남을 미담이 될 것이다.(因存這個愛才念頭, 日與廷臣酌議, 欲令天下才女俱赴廷試, 以文之高下, 定以等第, 賜與才女匾額, 準其父母冠帶榮身. 不獨鼓勵人才, 爲天下有才之女增許多光耀; 亦是千秋佳話.)"[37] 또한, 작가는 조서의 내용을 통해 그동안 여성들이 소외되었던 현실을 비판한다.

> 내규에 따라 인재를 선발해도 규방이 과거에서 제외된 것은 사실이다. 낭군은 추천을 받아 급제하나 여인들은 뜻을 이루지 못했다. 어찌 선발이 공정하게 보이겠으며, 인재가 넘쳐난다 말하기 어렵다.… 이에 널리 뜻을 물어 새로운 과거를 창설하니 성력 3년 여자 과거를 시행할 것을 예부의 관리들에게 명하노라.(『內則』選才, 科第尙遺閨秀. 郞君旣膺鶚薦, 女史未遂鵬飛. 奚見選擧之公, 難語人才之盛.…是用博諮群議, 創立新科, 於聖曆三年, 命禮部諸臣特開女試.)[38]

작품은 조서를 통해 지금까지의 과거제도가 남녀에 대해 공평하게 기회를 주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여성 황제는 혁신적인 여자 과거를 치르고자 했다. 여자 과거와 관련된

35) 李汝珍 著, 위의 책, p.352.
36) 胡適, 위의 책, pp.1125-1126.
37) 李汝珍 著, 위의 책, pp.304-305.
38) 李汝珍 著, 위의 책, p.307.

내용은 해외 나라들 중 흑치국의 유토피아를 현실에서 실현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작가는 흑치국에 관한 묘사를 통해 남녀평등을 실현시킨 혁신적인 이상사회의 유토피아를 보여주었다. 여성 문제에 관한 작가의 비판적인 사고는 여인국을 묘사한 우화에서도 접할 수 있는데, 여인국 이야기를 통해 남녀의 성 역할을 바꾼 혁신적인 유토피아 사회를 보여주었다. 또한 여인국 이야기에서는 곳곳에 여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들이 보인다. 특히 당오는 임지양을 구하기 위해 나라의 근심인 치수를 하게 되는데, 치수를 돕기 위해 모인 여자 일꾼들을 보고 눈치도 빠르고 민첩하며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남자들보다 훨씬 이해력이 좋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경화연』의 혁신은 여성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묘사되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여진이 『경화연』에서 여성문제를 통해 청대사회의 사회적 불평등을 이야기했다는 점이다. 진정염 등은 이 작품이 패관소설의 형식으로 사라지기 아까운 여자들의 행적을 기록했으나, "실재내용과 의의는 '향기로운 꽃 같은 여자'를 위한 전기의 범위를 훨씬 넘어선 것"이며, 문자옥(文字獄)의 재난을 피하기 위한 교활한 필법이라고 분석하였다.[39]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청대 사회의 불평등 특히, 한족에 대한 불평등을 이야기하고자 한 또 다른 차원의 의도가 있었음은 분명하다. 남성중심의 봉건사회에서 여성은 가장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로 사회적 불평등을 대변하기에 가장 적절한 소재이다. 또한 『홍루몽(紅樓夢)』과 같은 작품의 영향으로 소설에서 신화세계와 여성을 중심으로 사회 전반을 반영하는 이야기 방식이 유행하였다. 따라서 『경화연』은 신화와 여성의 이야기라는 방식으로 사회적 불만을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경화연』은 현실정치와 부조리한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작품은 구체적으로 정치제도와 과거제도 등 현실정치와 제도를 비롯해 사회관습과 풍속 즉, 사치·잔치·음식·혼인·매파·궁합·사주·장례·송사·미신·전족·축첩 등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지적하였다.

『경화연』은 현실정치의 불합리함을 비판하고 있는데 특히, 관리의 선발방식인 과거제도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작품은 부정과 부패로 가득 찬 과거제도의 실상을 비판하고 있으며, 동시에 과거시험을 위해 팔고문에만 몰두하는 지식인의 허위를 비판하고 있다. 제21회-제22회에서 당오 일행이 백민국의 서당으로 들어가니 팔고선생은 글을 제대로 읽지도 못한다. 그들이 숙사국에 이르자, 술집 심부름꾼까지 어려운 문자를 쓰고, 선비들은 이해하지는 못하는 어려운 고문만을 늘어놓는 허위로 가득 차 있다. 작품은 군자국의 유토피아를 묘사하면서 대조적으로 사회의 악습과 현실정치의 폐해를 통렬하게 비판하였다. 작품은 군자국 재상의 입을 통해 여러 사회 관습의 불합리함을 지적하였다. 그는 장례 풍속을 비판하면서, 죽은 자는 땅에 들어가야 안식을 취할 수 있는데 자식들은 풍수만을 따져 부모의 관을 매장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해 둔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풍수에 의존해 허투루 돈을 쓸 것이 아니라 선행을 베풀어 행복을 추구하라고 조언했다. 또 그는 자식의 출생과 사치스런 잔치를 비판하면서 잔치 비용으로 가난한 자를 도움으로써 행복을 추구하라고 조언했으며, 사치스러운 생활에 대해서는 군자들이 근검절약하는 생활을 하도록 백성들을 계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개인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부분별한 송사를 비판했다. 또 숙사국에 관한 묘사를 통해 작품은 새로운 정치개혁의 일면을 보여주었다. 이곳 사람들은 사농공상에 관계없이 모두 선비

39) 陳正炎·林其錟 저, 李成珪 역, 『중국의 유토피아 사상』, 지식산업사, 2011, p.381.

복장을 하고 어려서부터 글을 읽는데, 유교에 입문하면 유민 신세를 면할 수 있다. 숙사국은 백성 모두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과거시험의 기회를 주며, 과거시험이 과목(전공)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하나에만 정통하면 어느 정도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나라는 의무교육의 확대나 기회의 균등과 같은 기본적인 사회 평등을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현실정치에 있어서 숙사국은 선비가 죄를 저지르면 엄하게 처벌하고, 선행을 쌓으면 죄를 감해준다. 이 나라는 엄격한 법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선행을 통해 개도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곳에서는 선비들이 책을 통해 품성을 가다듬어 죄를 짓지 않고 성현의 가르침에 따르게 하는 방식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했다. 숙사국의 정치개혁은 비록 그 한계는 있지만, 새로운 정치에 대한 이상향을 제시하고 있다.

『경화연』은 유토피아적 이상사회를 제시함과 동시에, 유토피아와는 상반된 디스토피아를 묘사함으로써 사회비판 의식을 보여주기도 했다. 무장국(無腸國), 심목국(深目國), 백민국(白民國), 양면국(兩面國), 천흉국(穿胸國), 장비국(長臂國), 시훼국(豕喙國), 익민국(翼民國) 등 디스토피아 국가들을 통해 반어적으로 이상사회에 대한 동경을 제시하고 있다. 심목국에 대한 묘사에서는 눈이 손에 달려 상하 좌우는 물론 전후까지 두루 경계해야 하는 무서운 세상을 비판하고 있다. 백민국의 묘사에서는 과거제도를 비판하며, “열 살부터 아흔 살까지 공부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든 해 동안 3년마다 시험을 쳐야하는데, 그게 생지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라고 했다. 양면국에 대한 묘사는 인간의 추악하고 표리부동한 이중성을 비판하고 있다. 양면국 사람들의 호연건(浩然巾) 뒤에 숨어 있는 또 하나의 추악한 얼굴이 바로 현실에서의 인간의 본성임을 빗대어 말하고 있다. “매부가 갑자기 호연건을 걷어 올려 그의 내막을 간파하자, 곧 본성을 드러내어 선량한 얼굴을 악랄한 얼굴로 바꾸고 긴 혀를 내미니 마치 한 자루의 칼처럼 숨겼다 드러내었다 하였습니다.” 이들은 또 겉과 속이 달라 비단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예의바르게 행동하고, 무명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냉담하게 대하였다. 이 외에도 여러 나라에 대한 묘사들이 현실사회의 디스토피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행동이 올바르지 못하고 매사에 찡그려 심장이 비뚤어지고 병을 앓아 가슴에 구멍이 뚫린 천흉국, 재물을 탐해서 자기 몫은 물론이고 남의 것에 손을 뻗다가 기이하게 팔만 길어진 장비국, 민심이 나빠지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늘면서 전생에 거짓말한 죄로 돼지주둥이를 갖게 되어 일생동안 술지게미만 먹는 시훼국 등이다. 이러한 디스토피아의 묘사는 현실에 대한 강한 비판의식과 현실개혁에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또 다음으로, 『경화연』에는 과학문명을 숭상하고 발전적인 기술을 추구하는 장면들이 묘사되고 있다. 이것은 서학(西學)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측면도 있지만, 중국의 오랜 전통과 중국적 사유방식에 바탕을 두고 발전해온 혁신의 내용들도 보인다. 특히 역사·물리·의학·지리·수리·역산·기계공정 등의 지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제86회에는 여인국의 세자였던 약화가 하늘을 나는 수레를 타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등장한다. ‘하늘을 나는 수레’는 원래 기굉국(奇肱國)에서 만들었으나, 후에 주요국(周饒國)에서 배워 더 정교하게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러한 혁신적인 기계장치의 출현이 중국의 신화 속 상상력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해경』에 이 두 나라 기굉국(해외서경)의 이야기와 주요국(해외남경)의 이야기가 나온다. 곽박의 주에 의하면 기계장치를 잘 만드는 나라들로 소개하고 있다. 또 작품

에는 수학적 지식도 자주 등장하는데, 『구장산술(九章算術)』에 의거한 하천의 깊이와 넓이 재는 법·원주 계산법·돌의 길이, 무게, 부피 계산법·도형 길이와 너비 계산법·산가지 계산법·거리 계산법 등 수학적 지식이 곳곳에 등장한다.[40] 이 외에도, 『경화연』에는 본초학에 근거한 해박한 의학지식이 자주 등장한다. 화상·피부병·염증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약초의 제조법, 지혈·해독·면역 강화에 도움이 되는 약재와 치료법, 이질·복통·부인병·기침·골절 치료에 도움이 되는 제약법과 치료법 등 상처와 질병에 대한 여러 처방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41]

이런 점에서 『경화연』 속 유토피아는 작가의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과학적으로 발전한 사회에 대한 혁신적인 모습까지도 보여줌으로써, 현실개혁에의 의지와 혁신사상을 다양한 방면에서 보여주고 있음 알 수 있다.

2) 혁신의 한계와 복고의 추구

『경화연』은 18-19세기 작품으로, 작가의 개혁적인 주장과 비판은 당시로 보아 아주 진보적인 것임에 분명하지만, 동시에 시대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경화연』에서 작가가 제기한 사회비판과 개혁의지 역시 철저하지 못한 면이 있다. 그러므로 이 작품에서 제시된 개혁에의 주장은 새로운 이상사회의 건설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기이한 이야기라 하여 판타지와 결합시켜 현실인 듯 현실인 아닌 듯 불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 작가가 이상사회가 '복고(復古)'에의 추구를 보여주는 내용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이 작품의 내용은 백화선자가 우려한 것처럼 거울에 비친 꽃이나 물속에 비친 달을 뜻하는 '경화수월(鏡花水月)'이라는 말처럼 잡힐 듯 잡을 수 없는 공허한 이야기일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완전히 허황된 이야기는 아니다. 제목에서도 '경화수월'이라 하지 않고 '연'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어느 곳, 어느 시간에서는 인연(시기)을 만나면 이루어질 수도 존재할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서양의 '유토피아', 특히 모어의 유토피아에서 새로운 이상사회에 대한 모어와 히슬로다에우스의 논쟁 역시 개혁을 이야기하는 히슬로다에우스의 의견과 그 한계를 이야기하는 모어의 이중성과 역설을 담고 있다. 모어의 유토피아는 당시 영국사회를 철저히 해부하고 비판하는 현실적 토대 위에 히슬로다에우스의 입을 통해 개혁을 통한 이상적 도덕정치를 실현하는 이상사회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현실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작가 모어 스스로 깨닫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유토피아 소설은 태생적으로 이러한 이중성을 지닐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유토피아는 꿈꾸는 이상사회이며, 존재하지 않거나 찾을 수 없는 곳이 아닌가? 모어가 모어와 히슬로다에우스의 대화를 통해 역설적 글쓰기를 했다면, 이여진은 은일(隱逸)의 글쓰기를 했다. 모어의 이상향이 실현되기 어려운 현실적인 꿈이라면, 이여진의 유토피아는 판타지와 결합된 이상향이다.

우선, 혁신의 한계라는 각도로 볼 때, 『경화연』을 통해 이여진은 현실비판 의식을 드러내

40) 정선경, 「『경화연』에 보이는 청대 학술문화의 재현: 경학과 과학전통의 부활」,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학술대회, 2016, pp.246-249.
41) 정선경, 위의 논문, pp.243-246.

고 사회개혁에의 의지를 보여주었으나, 작품 속에서도 철저한 개혁이나 혁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작가는 미시적으로 유토피아의 단편들을 보여주고 선경이라는 거시적 유토피아를 제시했지만, 실체가 분명한 유토피아 세계를 완성하여 보여주지는 못했다. 여기에는 시대적 한계도 있겠지만, 중국 전통 유토피아 사상의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작품은 주로 여성문제에 대한 개혁 의지와 혁신적 방향을 제시해 보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는 한계를 보여준다. 작품 속 재녀들은 여자 과거에 참가하여 재능을 발휘했지만, 결국 남성들과 혼인하여 전통적인 여성의 미덕을 지키는 모습으로 돌아간다. 『경화연』의 혁신에 대한 한계는 작품의 서두에 분명히 드러난다. 이 책은 서두에서 여성들이 지켜야 할 봉건예교의 가르침을 담은 책인 조태고(曹大家)의 『여계(女誡)』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밝힌다. 작가는 『여계』를 소개하며 부덕(婦德), 부언(婦言), 부용(婦容), 부공(婦功)이라는 여성의 사행(四行) 덕목을 강조하고 있으며, 작품에는 여성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들이 있으나 전통의 규범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 지금 반소의 『여계』로 작품을 시작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 책은 비록 규방의 사소한 일들과 아녀자들의 한가롭고 자유로운 마음을 적고 있으나, 모두가 사행이라 부르는 덕목을 갖춘 여성들도 아주 많이 기록하고 있다.…어찌 내용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아름다운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다고 해서 모두 없애버려야 하겠는가?…현명한 사람은 좋다고 할 것이고 모자라는 사람은 하찮다고 할 것이다. 여자는 여자대로 부인은 부인대로 상은 상대로 변은 변대로 다 의미가 있다. 여성에 대한 것, 부인에 대한 것, 바뀌지 않는 것, 바뀌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적었다. 비록 소소한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이야기를 끝마칠 때에는, 모든 것이 올바른 자리로 돌아가며 음란하거나 상스러운 내용은 전혀 올리지 않았다.(今開卷爲何以班昭『女誡』作引? 蓋此書所載, 雖閨閣瑣事, 兒女閑情, 然如大家所謂四行者, 歷歷有人…豈可因事涉沓渺, 人有妍媸, 一幷使之泯滅?…其賢者彰之, 不肖者鄙之: 女有爲女, 婦有爲婦; 常有爲常, 變有爲變. 所敍雖近瑣細, 而曲終之奏, 要歸於正, 淫詞穢語, 槪所不錄.)[42]

『여계』는 한(漢)나라 조태고 반소에 의해 쓰여 졌으며, 여성이 쓴 중국 최초의 여성에 관한 책으로, 여성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여성들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행동규범을 적고 있다. 반소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대사회에서 여성들이 살아남기 위해 요구되어지는 미덕을 정리하여 전수하고자 했다. 이숙인은 남성 중심의 세계라는 구조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여성 지식인에 의해 서술된 '적극적인 보고서'라고 보았다.[43] 여기에서 이여진은 『여계』를 봉건시대 여성의 행동규범의 표준적 잣대로 제시하였을 것이다. 작가는 시종일관 창작의도에 대해 기이하고 환상적인 내용과 혁신에 대해 말하고 있으나, 결국은 올바른 곳으로 귀결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의 결말 역시, 무태후가 태평성세를 누리며 여자 과거를 실시하는 등 혁신적 정치를 보여주지만, 재녀들은 과거 시험을 치르고 여학사·여박사·여유사의 직위를 하사받은 후에는 직접적인 정치참여나 사회개혁 등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자신들의 재학을 드러내는 모습만

---

42) 李汝珍 著, 위의 책, p.1.
43) 이숙인 역주, 「『여사서』 해제」, 『여사서』, 도서출판 여이연, 2003, p.373.

을 보여준다. 이처럼 이 작품의 창작의도에 대한 작가의 직접적인 설명으로 볼 때, 작가가 분명 혁신적인 내용을 다루고자 하였으나, 시대를 초월하기 어려웠고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여진은 비록 혁신적인 사상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현실정치에서 실현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스스로 깨닫고 있었을 것이다.

혁신의 한계에 있어, 『경화연』의 신화와 현실의 결합이라는 이야기 설정과 소봉래산으로의 은일을 거시적 유토피아로 제시한 유토피아 구상은 개혁에의 소극적 의지를 보여주며 혁신에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작품에서 소봉래산 옥비석을 매개로 하여 현실 속 재녀들이 선계 선녀들의 환생이라는 신화적 설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실 속 재녀들에게 판타지적 요소를 부여하여 현실과 판타지를 구분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설정은 현실 개혁에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거시적 유토피아로 제시된 소봉래산은 선경으로 현실과 직접 맞서는 현실적 이상사회의 대안이 아니라 은일적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당오 일행은 "불사국 원구산에 있는 불사수를 먹으면 오래 살 수 있고, 적천이라는 붉은 샘물을 마시면 늙지 않는다.(國中有座員邱山, 山上有顆不死樹, 食之可以長生; 國中又有赤泉, 其水甚紅, 飮之亦可不老.)", "적천은 세월을 멈춰주고 신목은 수명을 늘려준다. 이것들을 먹으면 장수를 누려 오래도록 죽지 않는다.(赤泉駐年, 神木養命: 禀此遐齡, 悠悠無竟.)"[44]는 이야기를 듣고 이곳을 찾아 떠났다가, 풍랑을 만나 가지 못하고 결국 소봉래산에 닿게 된다. 불사국은 영생을 누리는 유토피아이나 찾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표류하던 당오 일행이 도착한 곳은 소봉래산이었고, 경치가 눈부시게 아름다워 마치 선계(仙界)에 온 것 같았다. 불사국은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선경에 이르렀음을 말해준다. 당오는 다구공과 함께 소봉래에 이르자 발걸음이 느려지면서, "제가 이곳에 오르니 공명심이 모두 사라지고 만사가 헛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발걸음을 자꾸만 느려지고 속세로 돌아갈 마음이 없어지네요.(小弟自從登了此山, 不但利名之心都盡, 只覺萬事皆空. 此時所以遲遲吾行者, 竟有懶入紅塵之意了.)"라고 하였다. 결국 당오는 속세와는 인연을 끊겠다는 말을 비석에 남기고 홀연히 사라져 버렸다. 이곳은 『경화연』이 추구하는 거시적 유토피아 즉, 근원적 유토피아로 사회개혁에는 소극적이며 은일적인 유토피아이다. 이것은 앞으로서 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혁신에 대해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유토피아의 구상 역시 소극적으로 방향으로 작용하여 혁신에의 한계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복고에의 추구라는 각도로 볼 때, 『경화연』은 복고의 유토피아라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 작품에서는 미시적 유토피아 구상을 통해 태평성세의 대동 유토피아를 곳곳에서 제시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작품은 전설의 황제 시대를 구현한 평화로운 태평성세를 상징하는 헌원국을 통해 구체적으로 그 이상사회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다른 해외 여러 나라를 통해서도 복고적 유토피아의 단서들을 발견할 수 있다. 군자국 이야기에서 작가는 재상의 입을 빌어 사치와 향락에 빠진 현실을 비판하면서, "세상 모두가 검소해지면 백성들은 입에 풀칠할 정도만 되어도 도적으로 떠돌지 않을 것이고, 도적이 적어지도 도적질 하는 풍도가 사라지게 될 것이며, 도적질 하는 풍토가 사라지면 천하는 다시 태평해질 것입니다.(況世道儉朴, 愚民稍可餬口, 卽不致流爲奸匪; 奸匪旣少, 盜風不禁自息; 盜風旣息, 天下自更太平.

44) 李汝珍 著, 위의 책, pp.277-278.

)”[45]라고 태평성세의 대동 유토피아를 제시하였다.

또한, 이 작품은 곳곳에서 유토피아를 위해 도덕적 절제를 추구할 것을 이야기 하고 있다. 숙사국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상사회는 사농공상에 관계없이 모두 선비복장을 하고, 어려서부터 모두 글을 읽는다. 또 선비가 죄를 저지르면 엄하게 처벌하고, 선행을 쌓으면 죄가 사라진다. 이 나라에서는 선비들은 거의 죄를 짓지 않고, 책을 통해 품성을 가다듬고 성현의 가르침에 따른다. 숙사국의 이야기에서 숙사국의 국왕은 전설 속 황제의 손자 전욱(顓頊)의 후손이다. 이곳은 유교의 가르침을 통해 품성을 가다듬고 성현의 가르침을 따라서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매우 적다.(幸而讀書者甚多, 書能變化氣質, 遵著聖賢之教, 那爲非作歹的究境少了.)[46] 이러한 묘사로 볼 때, 숙사국 역시 복고의 유토피아를 그리고 있다.

『경화연』에서는 이처럼 사회 개혁과 혁신에 대해 한계를 보여주는 은일의 유토피아를 보여주고 있으며, 옛 성현의 가르침을 받드는 복고의 유토피아를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전통과 혁신이 상호 의존하여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유토피아를 제시하고자 한 작가 특유의 유토피아 사유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4. 나오며

본 논문에서는 중국 고전소설에 나타난 유토피아의 특징이 무엇인지, 또 유토피아적 비전을 어떤 방식으로 제시하는지에 대해 청대 소설『경화연』을 통해 고찰해 보았다. 또한 이 과정에서 미래사회를 위해 제안하는 혁신적 대안과 혁신의 한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과거의 유토피아 의식을 통해 혁신을 사유하는 방식을 살펴보는 것은 미래를 위한 혁신의 길을 발견하고자 하는 노력일 것이며, 동시에 유토피아적 혁신의 한계를 인식하는 과정일 것이다.

『경화연』은 해외 여러 섬나라의 기이한 이야기를 통해 이상사회에 대한 미시적 유토피아를 표층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소봉래라는 선경을 설정하여 신화적 환상세계와 소극적 현실비판에 근거한 이상사회를 연결한 선경 유토피아를 심층적이고 거시적인 방식으로 구상하였다. 『경화연』의 사회비판 의식과 혁신 사상은 여성 문제에 대한 인식, 불합리한 현실정치와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인식, 과학문명에 대한 인식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보여주었다. 『경화연』은 신화와 역사가 만나는 흥미로운 이야기의 서술을 통해 중국의 전통적이고 독특한 유토피아 의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작가는 은일적 유토피아와 복고적 유토피아를 제시하면서 유토피아 의식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러한 한계는 시대적 한계이며, 동시에 유토피아의 태생적 속성으로 인한 한계이기도 하다.

토마스 모어의『유토피아』에서도 유토피아 섬이 진정한 유토피아를 실현한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어려워, 모어와 히슬로다에우스 사이의 논쟁을 통해 이것을 미해결의 문제로 남겨두었다. 이여진도『경화연』이 미완의 작품이라고 했는데, 이것 역시 유토피아와 혁신의 이

45) 李汝珍 著, 위의 책, pp.79-80.
46) 李汝珍 著,『鏡花緣』, 人民文學出版社, 1994, p.169.

야기는 완성하기 어렵다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유토피아는 존재하지만 찾을 수 없는 곳이라는 속성처럼, 이것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성찰하는 이야기이지 미래에 대한 분명한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 다만, 유토피아에 대한 탐색은 현재를 성찰하는 과정에서 '보다 나은 삶에 관한 꿈'을 꾸는 것이며 '최선의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 혁신의 길을 찾아보는 방법 중 하나일 것이다.

유토피아를 제안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모어는 '나침반의 비유'를 들고 있는데, 히슬로다에우스가 항해를 하던 중 나침반 사용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사용법을 알려주었다. 나침반은 문명의 이기이고 혁신적인 도구이지만, 이 사람들이 나침반을 믿고 겨울에도 항해를 계속하다가 바다에서 길을 잃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이들에게 더 큰 불행을 가져다주었다. 이것은 사회발전을 위해 개혁과 혁신이라는 훌륭한 방안을 제시하지만, 이로 인해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비유하고 있다. 모어가 유토피아를 역설적으로 제시하였다면, 『경화연』의 작가 이여진은 유토피아를 현실과 판타지를 결합한 '기이한 이야기'로 설정하여 보여주었다.

【참고문헌】

魯迅 著,『中國小說史略』, 人民文學出版社, 1996.

서림아,『중한고전문학에 나타난 '유토피아'의 유형과 사상 비교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이숙인 역주,『여사서』, 도서출판 여이연, 2003.

李汝珍 著,『鏡花緣』, 人民文學出版社, 1994.

이여진 저, 문현선 옮김,『경화연』, 문학과지성사, 2011.

魏得胜,「李汝珍的烏托邦」(書評),『雜文選刊(中旬版)』, 2009.

정선경,「신선설화와 유토피아」,『중국어문학지』, 제20집, 2002.

_____,「『경화연』에 보이는 청대 학술문화의 재현: 경학과 과학전통의 부활」,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학술대회, 2016.

정영호,「『걸리버여행기』와『鏡花緣』에 나타난 사회비판과 이상향」,『중국소설논총』 제18집, 2005.

_____,「『鏡花緣』의 풍자대상 연구」,『중국인문과학』, 제14집, 1995.

정재서 역주,『산해경』, 민음사, 제3판, 2017.

_____,「유토피아의 개념(槪念) 및 유형(類型)에 관한 비교(比較) 시론(試論)」,『중국문학』, 제24집, 1995.

_____,『중국신화의 세계』, 돌베개, 2011.

주경철,「『유토피아』: 미래를 성찰하는 허구」,『동서인문』, 제8집, 2017.

_____,『유토피아』, 을유문화사, 2017.

_____,『유토피아, 농담과 역설의 이상 사회』, 사계절출판사, 2015.

陳正炎·林其錟 저, 李成珪 역,『중국의 유토피아 사상』, 지식산업사, 2011.

胡 適,『胡適古典文學研究論集』, 上海古籍出版社, 1988.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국문	『경화연』, 유토피아, 이상사회, 사회비판, 혁신사상, 복고
	영문	*Jinghuayuan*, Utopia, Ideal society, Social Criticism, Innovation Thought, Retro

Utopia and Innovation Thought in *jinghuayuan*

Park, Myung-Jin

Jinghuayuan was created by Li Ru-Zhen of the 18th and 19th centuries, and is a representative novel of Qing Dynasty, an important Utopia work, showing mythical imagination, social criticism and innovation. Xianjing utopia, symbolized by Xiaofenglaishan in his works, is a macroscopic utopia that reveals the idea of 'the mythical world (Jinghuashuiyue, Xiannü) – Xianjing – the real world (yuan, Keju for woman)', and the foreign utopia island nations are criticisms of reality And utopia as an ideal society that reflects the craving for the ideal. The social critique consciousness and innovation thought discussed in *Jinghuayuan* is conspicuous in the perception of women's issues, perceptions of real politics and society, and awareness of scientific civilization. In terms of the limits of innovation, it suggests a utopia of the passive reality reform as escape to Xiaofenglaishan. The artist did not complete the utopia world with a clear reality. And based on Confucian thought, it presents the utopia of Datong society of a peaceful world(Taipingshengshi) and shows its pursuit to retro. This can be attributed to the artist's utopian reason to present a utopia where mutual dependence between tradition and innovation develops steadily.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박명진 / 朴明眞 / Park, Myung-Jin		
	소 속	영남대학교 문과대학 중국언어문화학과		
	Em@il	piao406@ynu.ac.kr		

논 문 작성일시	투 고 일	2018년 11월 12일	심 사 일	2018년 11월 19일
	수 정 일	2018년 12월 16일	게재확정일	2018년 12월 21일